

# “공동교섭단체 이달내 출범 목표”



“힘 모아 새로운 길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평화당 대표실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이용주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 평화당·정의당 3+3 회동... 선거제도 개혁·개헌 공조키로

### 정체성 다르고 원내대표·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 쟁점 산적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0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양당은 최대한 논의에 속도를 붙여 이번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4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원내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국회 평화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첫 협상에 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최경환 원내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각각 참석했다.

양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 전 사전례 형식으로 ‘3+3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이달 안에 공동교섭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화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을 마칠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 윤 원내수석부대

표도 “이번 주 내에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달 말까지 (양당에서) 최종 인준을 받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의정활동에서는 또 선거제 개혁과 개헌 등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양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아합으로 4인 선거구가 줄고 2인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우선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과 중앙홀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배숙 대표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원승이와 개가 싸우듯 으르렁거리더니 이 부분에서는 아합하고 있다”며 “이 탓에 3~4인 선거구는 씨가 마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인 선거구 확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데, 애초 34개였던 4인 선거구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발로 단 7개로 줄었다. 반면 2인 선거구는 91개로 무려 전체 선거구의 61%에 달한다”며 “개혁보다 기득권을 선택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탐욕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양당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어느 당에서 맡을지, 배정될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에서 가져갈지 등 ‘교섭정리’를 해야 할 쟁점이 많아, 이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동교섭단체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공동교섭단체의 이름은 어떻게 할지도 협상을 해야 한다. 또 성장·노동·복지에 대해서는 양당의 정체성 차이도 적지 않아 함께 가는 앞길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당 극심한 인물난

### 서울시장 후보 줄줄이 고사...호남 공천방식도 못 정해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지역을 불과 세 곳만 남겨뒀다. 한국당은 경기도지사(남경필 현 지사)와 대전시장(박성호 전 대전시장), 강원도지사(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 후보까지 공천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제 남은 지역은 서울·충남·경남으로 줄었다. 세종 및 호남지역(광주·전북·전남)은 아직 공천 방식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세 전략공천 지역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역시 서울이다. 한국당으로

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여겼던 인물들이 줄줄이 고사하면서 극심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홍정욱 해럴드 회장 역시 불출마를 선언했다.

충남지사 후보로는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이명수 의원으로 압축된 상태다.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윤환홍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바른미래당 안 영입 1호

### 송도 비리 제기 정대유씨

바른미래당은 20일 6·13 지방선거를 위한 인재영입 첫 번째 인사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식을 갖고 “정 전 단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시절 송도 개발 의혹을 제기했다”며 “임용직 공무원 신분으로는 비리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공직을 사퇴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정 전 단장을 소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6·13 선거 현장

### 광주시장 후보

#### 민형배, 지역화폐 도입 공약 발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지역주민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민 예비후보는 ▲지역 자산의 내부 순환 ▲공유 확대로 폐기물 줄어 생태친화적 ▲재능의 화폐 전환 가능 ▲공동체성 강화 ▲생활 임금과 기본소득 가능 등을 지역화폐의 순기능으로 소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화폐 전자 거러소 설립,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세금 및 공과금, 입장료 등 결제 가능, 교통수단 결제가능, 관광객 위한 지역화폐 환전소 설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나경채 대중교통 혁신 정책 발표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철학이 있는 대중교통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대중교통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광주 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승용차 중심 교통 체제이다”면서 “승용차 이용률이 높다 보니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졌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사고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준공영제와 지하철 1호선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광주는 자가용 없이는 불편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으며 대중교통 정책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김명진 “MB, 법의 엄정한 심판 받아야”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 “큰 이권을 잡고, 돈 벌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제 그의 상응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냉정한 판단으로 구속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 수사에 의하면 MB는 1994년부터 12년간 무려 300억원에 가까운 다스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면서 “국정원 특수 활동비 유용, 인사 및 공천 장사,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아직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까지 합치면 MB 비리는 메가 폭탄급이다”고 설명했다.

#### 강기정 ‘출산·양육 편한 광주’ 정책 발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광주’를 위한 복지공약정책 ‘내 삶을 바꾸는 5대 약속’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5대 약속’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730원 무이자 대출 ▲임신부터 출산 후 100일까지 ‘100원 행복택시’ ▲‘아동수당 플러스’ 10만 원 추가 지원 ▲오후 4~8시 ‘광주특새 아이돌봄’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이다. 강 예비후보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730원 무이자 대출은 주거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대책”이라면서 “청년들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용섭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해야”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개헌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 통해 “지난해 5월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개헌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도 일시적인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새 시대에 맞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박해자 “아시아 문화전당 정상화 나서야”



박해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이명박-박근혜 구속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정신을 아시아 국가 중심의 가치와 정신으로 승화·발전시켜 가는 것이 아시아문화수도 사업의 근본 취지이다”면서 “현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 방안이 정제되어 있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시대정신과 지역발전의 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의해 휘둘렸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 전남교육감 후보

#### 오인성 전 나주교육장 교육감 출마 선언



오인성(62) 전 나주교육장이 20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전남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교육장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현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현장 경험자여야 한다”며 “전남교육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현신해 제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오 전 교육장은 광주 송일고와 광주교대, 한국교원대학교원을 졸업했다. 지난 1978년 초등교사로 교단에 선 뒤 2017년 8월말 나주교육장으로 퇴직하기까지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본청 교원인사과장 등을 지냈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kwangju.co.kr

#### 최영호 “시장 후보 정체성·도덕성 검증 필요”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시민사회에 드리는 공개 제안서’를 통해 “광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에서 시장 후보들의 정체성,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 후보들이 광주정신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왔는지의 정체성 문제와 미투를 제외한 도덕성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전·인척 및 측근비리에 대한 공천배제 기준도 유아무야 되고, 당원명부 유출, 해당 행위 등 경선의 공정성 확보 문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정체성, 도덕성에 대한 더욱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